



추석연휴 풍경 추석연휴인 14일 한복을 입고 제주목관을 찾은 관광객들과 도민들(왼쪽).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찾아 옷놀이를 즐기는 가족 나들이객.



강희만기자

추석연휴 끝... 아쉬움 안고 일상속으로

연휴기간 도내 주요관광지 가족나들이·관광객 몰려
이틀간 14만6300명 국내항공편 통해 제주 빠져나가

“어머니 이제 가볼게요” “어이쿠, 우리 새끼, 할머니한테 뽀뽀해주고 가아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제주 공항 대합실은 귀경객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다만 전날 이미 10만명이 넘는 귀경객이 제주를 빠져나간터라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추석 다음날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12만5368명이 제주공항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4144명이

국내선 이용객이다.

또 15일에는 4만2188명(국내선 기준)이 제주공항 출발편 항공기에 몸을 싣는 등 이틀간 14만6332명이 국내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에는 가족을 배웅하는 발길들이 이어졌다. 귀경객들 양 손에는 집에서 챙겨온 선물이 목작하게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껴안으며 다음을 기약했다.

제주공항 출발장 앞에서 아들, 며느리, 손주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김

창식(75·제주시 일도1동)씨는 “추석 연휴가 예년에 비해 짧아 아쉽지만 별 도리가 없다”면서 “이렇게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섭섭하긴 해도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모처럼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설 이후 6개월 만에 고향을 찾았다가 다시 귀경길에 오른 양인현(42·서귀포시 성산읍)씨는 “그동안 못 찾아뵙던 친척들을 만나러 다니며 추석 연휴를 보낸 것 같다”면서 “(이제 다시 헤어져야 한다니) 아쉽다”고 전했다.

올해 추석 연휴엔 20만명 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1일 내국인 4만774명, 외국인 4699명 등 4만7473명이 제주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14일까지 나흘간 18만9766명이 항공편과 선박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15일에는 4만5000여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석 전후 닷새간 하루 평균 4만6000여명이 제주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관광을 즐겼다.

성산일출봉, 만장굴, 천지연폭포 등 도내 유명 관광지에는 맑은 가을 날씨 속에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새벽오름, 산굼부리 등 역사 명소에도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인파들로 가득했다.

이상민기자

한중일 청소년 문화캠프
제주서 오는 20~23일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함덕 더 아스테이호텔에서 '제4기 동아시아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지구이야기'를 주제로 제주 문화의교관 40여명, 중국 닝보와 일본지역 도쿄, 야마나시, 사가현 청소년 40여명,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청주시 청소년 10명이 참여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안전한 가을산행 119가 나선다

서부소방서 내달말까지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제주서부소방서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산악구조 출동 현황은 2016년 101건, 2017년 90건, 2018년 85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산악사고 심정지 환자는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8년 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등산하기 좋은 봄(3~5월, 96건)과 가을(9~10월, 52건)철에 집중적으로 산악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서부소방서는 오

는 21일부터 내달 말까지 한라산 여러목 코스와 제주꽃자왈 도립공원 등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소방공무원 2명과 의용소방대원 2명으로 구성된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봄과 가을철 주말에 집중 운영되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산악사고는 산행준비 미흡과 무리한 산행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등반 전에 반드시 산악사고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 당분간 맑은 날 계속될 듯 기상청 “21일 기점 낮 기온 뚝 떨어져”

추석을 기점으로 제주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6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며 “17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16일 아침 22~23℃, 낮 기온 26~28℃이며, 17일은 아침 기온 21~22℃, 낮 기온 27~28℃의 분포를 보이겠다.

이러한 날씨는 오는 25일까지 이

어지겠으며, 21일을 기점으로는 낮 기온이 25℃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15일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17일까지 북동풍이 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18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 겹쳐 해안 저지대는 침수피해 대비가 필요하다.

송은범기자

경기 어렵지만 추석 온정 넘쳤다

서귀포시 나눔창구 운영
물품 등 2억7300만원 접수

서귀포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와 읍면동에서 운영한 '추석맞이 사랑나눔 지원창구'에 기관·단체, 기업, 개인과 익명의 독지가가 기탁한 물품과 성금이 2억7287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시는 추석 전까지 기탁받은 물품과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 3532가구와 사회복지시설 42곳에 전달, 위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 운영한 나눔 지원창구에 접수된 물품과 성금은 작년 대비 14%(3410만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추석 접수규모 중 가장 많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식지 않은 것으로 시는 풀이하고 있다.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바농사랑 동아리에서 회원들이 직접 만든 가방 80점(400만원 상당)을 저소득 어르

신들에게 전달했고, 서귀포교회는 송산·정방·중앙·천지·동흥·서흥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600만원 상당의 생필품(세제·참기름 등) 120세트를 기부했다.

또 서흥동주민센터에는 익명의 독지가가 '또 추석명절이 와수다. 노고 톡톡히 명절 보낼께'라는 메모와 함께 쌀 10kg 100포대(350만원 상당)를 보내왔다. 이 독지가는 19년 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서흥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을 꾸준히 전달해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 공직자들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2018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미수령분인 68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65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조사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1796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7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휴)학·졸업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재직자 교육 참여 협약기업을 모집합니다.

교육분야	재직자 단기교육과정
기계설비분야	공조냉동기계, 가스, 배관, 열에너지설비, CAD, 용접 등
전기분야	PLC제어, 시퀀스제어, 태양광발전, 공유압제어, 전기기기, 전기공사 등
전자분야	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기기, 드론조정, 드론제작, 광섬유용착 등
자동차분야	전기자동차정비, 굴삭기운전(3톤미만), 기중기운전 등
디자인분야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스마트웹디자인, 영상편집 등

■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체
- 4대보험 가입 재직근로자

■ 특 징

- 참여업체의 재직근로자 **교육비 전액 무료**
- 훈련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산학협력처 | 연락처 : 064,754,7157 / 팩스 : 064,754,7113